

리스킨 랍비에 대한 응답

שללמו ריסקין Shlomo Riskin 랍비는 최근에 메시아닉 유대교를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예루살렘 포스트, 2010년 8월 27일자). 다음은 그에 대한 아셰르의 응답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리스킨 랍비는 기독교계나 유대교계에서 모두 존경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역동적이고 지성적이며, 영성도 있습니다. 그와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문제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리스킨은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핍박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예들을 생각해 봅시다.

1. 아미엘 오르티즈 Amiel Ortiz 는 목숨을 노린 공격을 당하고 겨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2. 아쉬돈에 위치한 콘포르티 Conforti 부인(그녀는 수년간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해 왔습니다)의 빵집은 고의로 파괴되었습니다.
3. 브엘세바의 메시아닉 공동체는 폭도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4. 아라드의 좀 더 작은 메시아닉 공동체는 반복적인 물리적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5. 수십 명의 메시아닉 유대인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거부 당했습니다.
6. 수 없이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언어 맞고, 공격 당하고 납치 당하며, 침을 맞고 가족들에게 버림 받았습니다.

이 공격들은 초정통파의 극단 분자들(우리가 보기에 주류 유대교를 대표하지 않는 이들)이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벌어진 유일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종”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인 표현과 종교의 자유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초정통파 유대교 선교사들처럼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도로 중간에서 차들에 접근하기도 하고, 쇼핑 센터에서 사람들에게 트필린을 착용하도록 하며, “개종” 노력의 일환으로 시끄러운 스피커를 단 선교 차량으로 시내를 돌립니다.

리스킨 랍비는 우리가 “기만”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누가 물어 봐도 답해줄 수 있을 만큼 공개적으로 표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들어와 조금만 있어 보면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할례, 샤바트, 절기, 바르 미쯔바와 후파 등 유대적 의식들은 우리 신앙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계와 랍비 유대교계 모두에서 비난을 받아 왔음에도 그 가치들을 지켜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를 유대교의 굴레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렇다면 레비 Rebbe 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하바드 Chabad 운동은 어떨습니까? 그렇다면 텔 아비브의 “메시아”는 어떨습니까? 나흐만 Nachman 이라는 이름이 세계를 구속시킨다고 선포하는 이들은 어떨습니까? 개혁파 유대교와 신新 카발라 Kabbalah 는 어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주류” 정통파 유대교와 다른 것입니다.

속죄일

이번 금요일에 랍비 유대교인들과 메시아닉 유대교인들은 모두 성경에 따라 속죄일을 지킵니다. 아하발 예슈아도 다른 두 개 공동체와 만나, 금식과 회개, 기도, 강의와 교제의 시간을 하루 종일 갖습니다.

우리는 예슈아께서 흘리신 보혈에서 구속을 얻습니다. 정통파 유대교인들은 닭이나 기부금을 구속을 바라는 사람의 머리 위에서 흔듭니다. 랍비는 의식 중에 “대체, 교체, 구속”을 선포합니다.

정통파 유대교인들은 속죄일 전의 아침에 정결을 위한 물 세례(“미크베 mikveh”)를 자주 합니다. 랍비들은 물 세례가 “새로운 탄생” 혹은 “새로운 창조”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물에 잠기는 사람이 물 속에서 숨을 참는 것은 일종의 “죽음”이요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일종의 “부활”입니다.

9월 11일

많은 언론들은 미국 내 “이슬람 혐오증 Islam-ophobia”의 위험을 헐뜯고 있습니다. 허나 쌍둥이 타워의 3,000 명을 죽인 것은 “이슬람 혐오증”이 아니라 “이슬람 지하드”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결코 이슬람과 전쟁하지 않으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지하드주의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바마도 쌍둥이 빌딩을 공격한 것이 이슬람이 아니라 “알 카에다”라고 말했습니다. “알 카에다”에 속한 이들은 분명히 스스로 무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 카에다”가 이슬람이 아니라면, 헤즈볼라나 하마스, 와하비, 인민 전선 Popular Front, 이슬람 형제단 Islamic Brotherhood, 탈레반이나 알 아프사 여단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멸을 갈구합니다. 그들이 무슬림이 아닙니까?

<http://www.youtube.com/watch?v=CRPYTiN5Oso>

가브리엘라 샬레브

솔로몬 인트레이터

최근 마이리브 신문은 UN 이스라엘 대사로 있다가 은퇴하는 가브리엘라 샬레브 Gabriela Shalev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샬레브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률 전문가요 학자입니다. 샬레브는 욘 키푸르 전쟁에서 수에즈 운하에 갇힌 33 명을 구출하다가 남편이 죽은 이후로 두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샬레브는 측면 투척 작전 Cast Lead, 골드스톤 보고서 the Goldstone Report 혹은 소함대 사건 the Flotilla incident 등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변호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농담 삼아 그녀는 맨하튼의 풍성한 문화 생활을 UN 본부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려움에 견주어,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라 했습니다.)

샬레브는 적대적인 아랍 국가의 대사와 사적인 만찬 자리에서 수 시간 동안 대화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공개 회동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샬레브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금세 UN에는 진실이, 허상의 진실이 존재함을 파악했습니다.” 측면 투척 작전 중에, 수많은 대표들이 전쟁 범죄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공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개인적으로 샬레브에게 다가가 이스라엘이 “할 일을 끝내도록” 격려하며 하마스를 전멸시키라 했습니다.

샬레브는 골드스톤이 제네바의 인권위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묘하게 뉴욕 총회에서 거대하게 발표했다고 말합니다. 샬레브는 골드스톤 보고서에 협조할 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위원회의 현장이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부상 당한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중에도, 샬레브는 유사한 방법을 쓰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냉소적이고 조작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함대 사건도 상대적으로 작고 소외된 일에 대한 주요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는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샬레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체첸에서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건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난하는 근거가 됩니까?”

가브리엘라 샬레브는 언론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을 고발했다고 말합니다. “실수가 있긴 해도 우린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이게 좀 비꼬는 듯 들릴 수도 있지만, 지난 2년을 UN에서 보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스라엘이 세계에 비춰진 이미지보다 훨씬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